

『沙石集』의 敬語研究*

- 文體的 用法을 중심으로 -

都 基 禎
(남서울대학교)

1. 서론

敬語史에 있어서 중세는 그 어느 시대보다 용법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기였다. 상대, 중고 시대에는 素材敬語로 사용되던 경어가 헤이안(平安) 중기부터는 청자에게 敬意的 配慮를 나타내는 對者敬語로 쓰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용법 변화는 소위 「謙讓語」¹⁾로 사용된 一群의 경어에서 보이며 주로 대화문에서 청자를 대우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세가 되면 이와 같은 상대, 중고 시대의 용법을 이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종래의 용법과는 다른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申す」와 「侍り」를 들 수 있다.

『沙石集』에서는 「申す」가 존경을 나타내어야 할 대상이나 인물에 대해서 주로 사용되거나 또는 대화문에서는 청자를 대우하는 경어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성질과는 다른 대우성을 가지는 것이 있다. 특히 地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남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화제속의 하위자와 상위자와 관계에 있어 그 행위 표현을 통해 화자가 상위자에게 敬意的 配慮를 나타내는 경어 (宮地裕, 1981『講座日本語學 9, 敬語史』 明治書院 p.10)

文에서 표현주체인 작자가 문장의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云ふ」와 구분해서 「申す」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沙石集』가 중세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地文 뿐만 아니라, 非當代語인 「侍り」를 대화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語法上 하나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자료가 불교 설화집이라는 설정에서 출가자들의 대화나 옛날이야기를 소재로 한 만큼 이들 대상에게 어울리는 「侍り」의 표현을 통해 고풍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沙石集』에 있어 종래의 용법과는 다른 「申す」와 「侍り」의 이러한 표현에 주목하면서 각 설화의 용례 분석을 통해, 이들이 가지는 대우성에 관해 고찰한다.²⁾

『沙石集』은 중세 가마쿠라(鎌倉) 시대인 弘安 6년(1283년) 승려인 무주(無住)에 의해 완성된 불교 설화집이다. 현재까지 여러 형태의 傳本이 발견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인용할 『沙石集』은 『梵舜本』(お茶の水圖書館藏)으로 全 十券伍册(古本系)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화의 순서나 주제가 1권에서 5권까지는 流布本系나 다른 古本系와 대조해 보면, 서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6권 이후에는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사본에서는 볼 수 없는 세태나 풍속 등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중세어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본 논문에 사용한 용례는 岩波書店 日本古典文学大系 85 『沙石集』(渡辺綱也 校註)에서 인용했다.³⁾

2. 〈申す〉

1) 「申す」의 용법

〈1〉寶地房ノ證眞法印、夢ニ西坂本ヨリ十禪師ノボラセ給フニ參
アヒヌ。手輿ニメシテ、御眷屬濟々トシテオハシマスガ、何

2) 『沙石集』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黒沢幸子(1975), 若林俊英(1978), 山下正治(1979)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주로 對者敬語인 「侍り」와 「候ふ」의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3) 渡辺綱也 校註(1966) 『日本古典文学大系 85 沙石集』 岩波書店. pp.57-462.

事ヲカ申サマシトヲモヒ、老母ノ貧キ事ヲ思出テ、「彼老母
養程ノ事御計ヒ候ヘ」ト申ケレバ、…………… (1-7)

<2>三井寺ノ長吏公顯僧正ト申セシハ顯密ノ明匠ニテ、道心アル
人ト聞ヘケレバ、…………… (1-3)

<3>(看病する女の人→上人の弟子門徒)「實ニ今ハ申侍ラム。コ
レハソノカミ思カケヌ緣ニアヒテ、思ノ外ナル御事ノ候ケ
ル某ト申ス者ノムスメナリ。其ニハカクトモ知セ給ネドモ、
母ニテ候者ノ、『汝ハカカル事ニテアリ』ト申シカバ、…
……………」ト泣々語りケレバ、…………… (4-3)

용례 <1>에서는 쇼신(證眞) 법인이 꿈속에서 十禪師에게 자신의 노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부분에 「申す」로 표현되어 있다. 이 「申す」의 동작주는 쇼신이며, 행위 동작을 받는 대상주는 十禪師이다. 즉, 이것은 표현 주체인 작자가 화제속 등장인물의 상하관계를 동작주를 하위, 대상주를 상위로 인식하고 그 상위자인 十禪師를 대우하기 위해 하위자인 쇼신의 「云ふ」 행위를 「申す」로 나타낸 것이다. 상대 이후 사용된 전형적인 겸양어 용법의 「申す」라 할 수 있다.

용례 <2>의 「申す」는 「申す」 동작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장소의 배후에 朝廷이나 神佛 등의 절대적 지배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대상주의 칭호나 관직, 또는 신성한 장소를 대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人々が～申し上げる」라는 의미를 가지는 <2>의 「申す」는 <1>의 「申す」와 마찬가지로 동작주를 하위, 대상주를 상위로 인식하고 대상주인 고켄(公顯)승정에게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겸양어 용법의 「申す」로 볼 수 있다.

<3>의 용례는 여러 해 동안 중풍으로 병석에 누워 있는 어떤 스님과 그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극진한 정성으로 간병하는 여인과의 대화문이다. 스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여인이 「侍り」와 「候ふ」를 사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스님에 대해 매우 공손한 말투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申す」는 <1><2>의 「申す」와는 그 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경의의 대상은 「申す」의 대상주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청자인 스님에게 있다.

「申す」(a)에서는 「某ト申ス者ノムスメナリ」(저는 아무개라고 하는 사

람의 딸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申す」의 동작주는 ~라고 부르는 일반 사람들이며 불리어지는 대상은 여인의 모친이 되기 때문에 만일 이 「申す」를 겸양어 용법으로 본다면, 화자인 여인이 「申す」의 대상자인 자신 어머니를 높여서 표현하는 결과가 된다.

「申す」(b)에서는 「『汝ハカカル事ニテアリ』ト申シカバ ………」(너는 여차여차 해서 태어났다고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했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이 「申す」를 겸양어 용법으로 보면 동작주는 여인의 어머니이고 그 대상주는 화자인 여인이 되기 때문에 화자 스스로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自敬表現이 되고 만다.

일반적으로 절대적 지배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自敬表現을 「申す」(b)에서 여인이 스스로에게 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3>의 「申す」(a)(b)는 <1><2>의 「申す」가 가지는 대우성과는 다른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대우의 방향은 대상자인 여인의 모친이나 여인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인 스님에게 있다. 즉, <3>의 「申す」(a)(b)는 청자인 스님에 대한 경의적 배려를 나타내기 위해서 「申す」의 동작주나 대상주를 화자 자신의 인물로 인식하고 화제(「云ふ」 행위)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제속 등장인물의 동작 행위를 낮추어서 표현함으로써 대우의 대상이 청자에게 있는 대우법은 중고 시대 이후 주로 대화문이나 서간문에 多用되기 시작되며 대표적인 경어로는 「侍り」나 「給ふ」(下二段)를 들 수 있다. 宮地裕(1981)는 이러한 용법의 경어를 겸양어와 구분해 「丁重語」⁴⁾로 분류했다.

『沙石集』에는 <1>~<3>의 「申す」와 같은 상대, 중고 시대 이후의 용법을 계승하는 용례가 작품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자료에는 이와 같은 종래의 용법을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른 대우성을 가지는 중세 경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申す」가 地文을 중심으로 빈출하기 시작한다.

4) 宮地裕(1981) p.10

2) 문체적 용법의 「申す」

〈4〉中比遠江國或山里ニ、所ノ政所ナル俗アリケリ。サカサカシキ物ナリケリ。他行ノ隙、妻晝寢シ、久クヲドロカザリケルヲ、夫歸テ寢屋ヘ入テ見レバ、伍六尺斗ナル蛇マトハリテ、口サシ付テ臥シタリ。杖ヲモテ打放テ申ケルハ、「親ノ敵キ宿世ノ敵ト云ツレバ、子細ニ不及、殺害スベキ事ナレドモ、今度斗ハ許ス。自今以後、斯ル避事アラバ命絶ベシ」ト云テ、…………… (7-4)

용례 〈4〉는 도토오미(遠江)지방의 한 산골에 장원 일을 하고 있는 꽤 영리한 속인이 있었다. 바깥의 일을 보고 집에 돌아와 침실로 들어가 보니 대어섯 자는 되어 보이는 뱀이 아내를 휘감고서는 혀를 날름거리며 누워 있었다. 남편이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서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짓을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엄하게 꾸짖으며 내쫓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남편이 뱀에게 말하는 부분이 「申す」로 표현되어 있다. 「申す」의 동작주는 남편이고 그 상대인 대상주는 뱀이 된다. 地文에 사용된 「申す」이기 때문에 표현주체인 작자가 「申す」의 대상자인 뱀을 대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 「申す」는 겸양어 용법인 「申す」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편과 뱀과의 대화에는 뱀에 대해 경의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현도 보이지 않고 다른 부분은 「云ふ」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이 「申す」가 地文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작품의 수용자인 일반 독자를 대우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제공자인 화제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나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중고 시대 이후 발달하는 정중어 용법의 「申す」와 유사한 대우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의 용례 「杖ヲモテ打放テ申ケルハ、『親ノ敵キ宿世ノ敵ト云ツレバ、……………』ト云テ、」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地文에서 앞에서는 「申す」, 뒤에서는 「云ふ」로 표현되어있어 모순이 발생한다. 다음 다른 용례에 사용된 「申す」를 보기로 한다.

〈5〉和州ノ菩提山ノ本願僧正ノ御房ニ、忠寛正信房ト云僧アリケ

り。アマリニ眠ケレバ、眠正信トゾ人ハ申ケル。 (8-1)

용례 <5>에서 쓰인 「申す」는 원래 존경받을 인물의 이름이나 관직, 또는 신성한 장소 등을 나타낼 때 承接되어 그 대상주를 대우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는 「申す」의 대상주에 대해 「忠寛正信房ト云僧アリケリ」로 직접적인 존경 표현이 없고 뒤에서는 같은 인물에 대해 「眠正信トゾ人ハ申ケル」로 표현되어 있다. 「云ふ」와 「申す」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용례<4>의 「申す」와 같은 문제점이 남는다.

대화문에서 청자를 대우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는 달리 地文에서 <4><5>의 「申す」와 같은 용법은 종래의 용법과는 다른 대우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표현주체인 집필자가 작품을 읽는 일반 독자들에게 문장에 있어 강조나 포인트와 같은 어떤 효과를 얻기위해 사용된 표현으로 간주된다. 중세의 地文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申す」의 용법을 穂田(1976)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⁵⁾

- (A) 「申す」には、もはや為手を低める機能が著しく微弱化している。だが、<低め>の意識情意だけはなお残って、聞き手(読者)に対して、多少とも身を低くする話し手の態度ないし、ポーズを表わす。
- (B) 「申す」には、いかなる種類の<低め>も退化してしまつて、ただ、<申す表現>が常に随伴していた莊重感だけで用いられている。

용례 <4><5>에서 「申す」가 뱀이나 신분이 낮은 일반 사람들에게 대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해오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집필자의 입장에서 수용자인 불특정다수의 독자들을 위해 화제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했다면, 여기에 사용된 「申す」는 청자를 대우하는 중고 시대의 정중어 용법과 유사한 (A)단계의 「申す」로 볼 수 있다.⁶⁾

5) 穂田定樹(1976) 『中古中世の敬語の研究』 清文堂. p.189

6) 『沙石集』의 地文에는 「コトゴトク夢ニ違ザリケレバ、此俗ニ、シカシカ

그러나 <4><5>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地文에서 「申す」와 「云ふ」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A)단계의 「申す」로 보기 어려우며 이들이 가지는 표현성은 (B)단계의 「申す」로 판단된다.

즉, <4> 「申す」에서는 뱀을 꾸짖으며 내쫓는 상황에서 「申す」자체의 어감이 가지는 하나의 효과를 독자들에게 주기 위한 어떤 「엄중함」이나, <5>의 「申す」에서는 사람들이 쇼신보(正信房)를 잠꾸러기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화제를 낮추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없는 (B)단계의 「申す」용례를 보기로 한다.

<6>實ニ情アリテ、萬人ヲハグクミ、道理ヲモ感ジ被申ケル。マ
メヤカノ賢人ニテ、仁惠世ニ聞ヘ、道理想面白キ物ナシトテ、
道理ヲ人申セバ、涙ヲ流シテ感ジ申サレケルトコソ、聞
傳ヘタル。民ノ歎ヲ我歎トシテ、萬人ノ父母タリシ人ナリ。

(3-2)

『沙石集』에는 당시 가마쿠라(鎌倉) 정권의 집권자인 호조 야스토키(北條泰時)의 인간성이나 공적을 칭송하는 부분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용례 <6>에서는 야스토키가 만인을 포용하고 인간의 도리를 아는 현인이며 누군가 도리를 말하면 눈물을 흘리고 감탄하며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만인의 부모라 할 만한 인물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부분에 「申す」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6>에서는 절대 권력자 야스토키의 「云ふ」 행위를 작자가 독자들에게 경의적 배려를 나타내기 위해 제공하는 화제를 낮추어서 「申す」로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이 「申す」부분이 존경의 조동사인 「る」와 承接되어 「申さる」로 표현된 것을 보더라도 표현주체인 작자가 동작주를 대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申す」에는 화제를 낮추어 표현하는 기능은 없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인 중후감이나 장중한 어조를 나타내기 위한 (B)단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ト申ケル時、.....(7-9)와 같이 경의적 배려를 나타낼 대상이 아닌 경우에 게도 「申す」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종류의 표현은 표현주체인 작자가 독자를 의식한 대인 태도를 말하며 (A)단계의 성질을 가지는 「申す」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4>~<6>의 「申す」와 같이 표현주체인 작자가 문장의 어떤 표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을 <1>~<3>의 「申す」와 구분해 문체적 용법의 「申す」로 규정한다. 다음은 이러한 표현성을 가지는 「申す」를 사용해 문장의 표현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대표적인 용례를 보기로 한다.

<7>海中ニ蚘ト云物アリ。蛇ニ似テ、角ナキ物ト云ヘリ。妻懷妊シテ、猿ノ生肝ヲ願ヒケレバ、山ノホトリ、猿ノアリケル處ユキテ、「此山ニハ菓ミ多シヤ」ト問フ。猿ノ云、「菓ハナハダエガタシ」ト云ヘバ、蚘ノ云ク、「海中ニ菓多キ山アリ。ヲワシマシカシ」ト云。猿ノ云、「海中ヘハ、争カユカン」ト云。蚘ノ云、「我が背ニノセウ」ト云。「サラバ」トテ、背ニオリテユク。海中遥ニユケドモ山モ見エズ。「イカニ山ハ何クゾ」ト云ヘバ、「ゲニ海中ニ、争カ山アルベキ。我妻、猿ノ生肝ヲ願ヘバ、ソノ為ナリ」ト云。猿、色ヲ失テ、イカニスベキ方ナクテ申ケルハ、「サラバ山ニテモノ給ハデ、ヤスキコトナリケルヲ。我生肝ハアリツルヲ山ノ木ノ上ニヨケリ。イソギツルホドニ、ワスレタリ」ト云。サテハ肝ノ爲ニコソ具シテキツルト思テ、「サラバ返テトリテタベ」ト云。「ヤスキコト」ト云ケレバ、返テ山ヘユキヌ。猿ル木ニノボリテ、「海中ニ山ナシ、身ヲハナレテ肝ナシ」ト云テ、山ヘ深く入ヌ。蚘ヌケヌケトシテ返リヌ。コレハ獸マデモ、狂惑ノ心アル事ヲ經ニ説ケリ。
(5本一8)

<7>은 바다 속에 사는 이무기가 원숭이의 생간을 먹고 싶다고 하는 새끼를 뱀 마누라를 위해 산 근처에 원숭이를 찾아가 바다 속에는 나무열매가 많은 산이 있다고 띄어 등에 태워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나중에 속은 것을 알아차린 원숭이가 자신의 간을 산 속 나무위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다시 가져와야 된다면 기지를 발휘해 다시 육지로 나와 산으로 도망치는 내용을 담은 설화의 한 장면이다.

<7>에 표현된 「申す」를 살펴보면, 원숭이가 이무기에게 말하는 부분에 사용되어 있어 이 「申す」의 동작주는 원숭이이고 대상주는 이무기라 할 수 있

다. 만일 이 「申す」가 대상주인 이무기에 대한 경의적 배려를 나타내는 것이 라면 표현주체인 작자로부터 어떤 형식이든지 문장 안에서 이무기에 대한 동 작행위에 경어를 사용해야 하나 이러한 형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것을 (A)단계의 「申す」로 보아 작품의 수용자인 독자들에게 대한 경 의적 배려로 화제를 제공하는 작자가 「申す」를 사용했다면 원숭이와 이무기 상호간의 행위동작을 전부 「申す」로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곳은 전 부 「云ふ」로 되어 있고 유독 이 부분에만 이와 같이 「猿、色ヲ失テ、イカ ニスベキ方ナクテ申ケルハ、」(놀란 원숭이는 얼굴빛이 하얘지면서 어떻 게 할 줄을 몰라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 「申す」로 표현되어 있다. 이무 기에게 속아 바다 속으로 들어간 원숭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주 절박한 상황인 이 부분을 표현주체인 작자가 문장의 극적인 표현효과를 내기 위해 일반적 서술인 「云ふ」대신에 「간곡함, 긴박감, 비장함」 등의 어감을 주는 「申す」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7> 「申す」와 같은 표현성을 가지는 다 른 용례를 보기로 한다.

<8> 下總國ニ、惑女人、繼女ノ十二三斗ナルヲ、大ナル沼ノ畔ヘ 具シテ行テ、此沼ノ主ニ申フス。「此女ヲ參テ、聳ニシマイ」 ト、タビタビイヒケリ。惑時、世間スサマジク風吹き、沼ア レタル時、又例ノ様ニイフニ、此女殊ニ恐シク、身ノ毛イヨ 立。沼モ水浪タテ、風荒クシテ、世間モ暗ク覺ヘケレバ、急 ギ逃テ家ヘ歸ルニ、物ノ追心地シケレバ、彌ヲソロシナンド 云バカリナシ。サテ、父ガアリケルニトリ付テ、斯ル事コソ アリツレト云。サル程ニ母モ内ヘ逃入ヌ。其後、大ナル蛇來 テ、頭ヲアゲ、舌ヲウゴカシテ、此女ヲ見ル。父、下闕ナレ ドモ、サカサカシキ者ニテ、蛇ニ申シケルハ、「此女ハ我女 也。母ハ繼母ナリ。我ガユルシナクテハ、争カ取ルベキカ。 母ガ詞ニ不可依、妻ハ夫ニ隨フ物ナレバ、母ヲバ心ニ任ス。 トルベシ」ト云時、蛇、女ヲ捨テ、母ガ方ヘハイユキヌ。

- 7) 여기에 사용된 「申す」는 대화문에서 「申す」의 동작주인 계모가 대상주인 늑에 사는 神靈에게 「參らす」라는 경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申す」를 神佛에 대한 경어적 배려를 나타내는 겸양어 용법의 것으로 본다.

其時父此女ヲ具シテ逃ヌ。此蛇、母ニマトヒ付キヌ。母モ物
狂シク成テ、既ニ蛇ニ成リカカリタルト聞エキ。 (7-3)

〈8〉은 시모후사(下總) 지방에 사는 어떤 계모가 어린 의붓딸을 미워한 나머지 아이를 데리고 가서 큰 늪의 神靈에게 아이를 데려가 당신을 사위로 삼겠다고 늘 빌었다. 어느 날 늪가에 가서 또 빌고 있는데 늪에서 물결이 일어나면서 바람도 불고 주위가 깜깜해지더니 큰 뱀이 나타난다. 놀란 계모는 무서워서 의붓딸을 데리고 집으로 도망쳐 오는데 뱀이 집까지 따라온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자초지종 들은 아버지는 딸을 데려가려 하는 뱀에게 침착하고 엄중한 말투로 아내도 지아버의 말을 따라야 한다며 세상의 도리를 말하고는 딸 대신 계모를 내줘 위기를 모면했다는 설화이다.

문장 안에서 뱀에 대한 서술 부분에 어떠한 경의표현도 하지 않고 서로간의 대화에는 「云ふ」가 사용되고 있어 표현주체인 작자로부터 뱀에 대해 어떠한 대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독 이 부분만을 「申す」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申す」가 대상주인 뱀에 대한 대우라기보다 작자가 다른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랑하는 딸을 잡아가려는 절대 절명의 위기 순간에 뱀에게 엄중함이나 긴박감을 불러일으켜 문장의 표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申す」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沙石集』의 地文에는 용례 〈4〉~〈8〉의 「申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고 시대의 대화문에서 특정한 청자를 대우하는 정중어 용법과는 다른 대우성을 가지는 중세 경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체적 용법으로 쓰인 「申す」가 頻出한다.

3. 〈侍り〉

1) 「侍り」의 용법

「侍り」는 헤이안(平安) 중기에는 그 사용유무에 따라 대화문인가 地文인가를 구별 지을 만큼 口語로서 多用되었던 경어였다. 그러나 중고 시대의 「侍り」

는 존경어에 승접할 수 없으며 명령형을 만들 수 없고 화제 또한 비 인칭이나 尊者에 관한 사항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화자 자신에 관해 극히 국한된 범위에 서만 허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의 「侍り」는 중세 대화문에 사용된 「候ふ」처럼 완전한 대자경어라 할 수 없었다. 중세가 되면 대화문에서 그 자리를 「候ふ」가 대신하게 되며 「侍り」는 古語化의 길을 걷게 된다.⁸⁾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沙石集』에는 중고 시대 주로 정중어 용법으로 사용된 「侍り」가 地文에 多用되고 있고 대화문에서 중세를 대표하는 口語인 「候ふ」와 併用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자료가 불교 설화집이라는 설정이 옛날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만큼 「侍り」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대부분이 중고 시대와는 다른 대우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沙石集』의 「侍り」를 「候ふ」와 비교해 그 사용횟수를 보기로 한다.

〈表1〉 『沙石集』에 쓰인 「侍り」・「候ふ」의 사용수⁹⁾

卷	侍			候		
	会話	地の文	計	会話	地の文	計
一	14	33	47	20	0	20
二	12	17	29	26	0	26
三	15	24	39	70	0	70
四	6	8	14	18	0	18
五本	3	13	16	17	0	17
五末	3	33	36	26	0	26
六	8	15	23	46	0	46
七	28	28	56	82	0	82
八	10	6	16	134	1	135
九	25	11	36	96	3	99
十本	21	11	32	39	2	41
十末	17	23	40	16	2	18
計	162	222	384	590	8	598

8) 『沙石集』와 같은 시기의 여류일기인 『十六夜日記』의 대화문에서는 「候ふ」만 전용되고 「侍り」 사용이 전혀 없다. (藁谷隆純, 1989 『中古・中世の敬語』 教育出版センター pp.213-239)

9) 山下正治(1979) 「沙石集の研究(七)」-「侍」と「候」について 『立正大学紀要』 12. p.18.

「侍り」가 地文 에서 222例, 그리고「候ふ」와 비교해 그 사용량은 적지만 대화문에서 162例 사용되고 있다. 중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侍り」가 口語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먼저 地文에 사용된「侍り」의 구체적인 용례를 들기로 한다.

<9>此故ニ、老ノ眠ヲサマシ、徒ラナル手スサミニ、見シ事聞シ事、思ヒイダスニ隨テ、難波江ノヨシアシヲモ撰ズ、藻鹽草手ニ任セテ、書キ侍リ。…………… (序)

<10>仰此物語ノ旨趣、序ニ書侍リト云ヘドモ、猶心ツキガタキ故ニ、重テ述懐ス。世間ニ古キ物語多シトイヘドモ、近代ノ事ハ書置事モ侍ラザルニヤ。代ノ末ニ聞ヘザラン事モ、ナゴリナク覺テ、愚ナル人の心ヲス>ムル便リニヤト、拙キ詞ヲハバカラズ、書置キ侍ル也。…………… (述懐事)

<9>는 『沙石集』서문으로 자신의 손으로 보고 들은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붓 가는 대로 써서 모아두었다는 집필의 동기를 나타내는 부분에 「侍り」를 사용하고 있다.

<10>은 집필을 마치고 난 후, 이야기를 수록하게 된 취지를 거듭 밝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讚嘆하고 여기에 실은 설화를 통해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해탈의 깨달음을 얻는 방편이 되기를 바란다는 작자의 심경을 토로하는 술회록 부분에 「侍り」를 10회나 사용하고 있다.

<11>去シ弘安元年夏比、坂東ニ疫病ヲビタタシクシテ、人多ク病死侍シニ、親キ小童ノ勞侍シガ、「童部ノ來テ、……………」ト云テ、病イエニキ。親見聞シ事ニテ侍レバ、人ヅテナラズ。 (7-24)

<11>에서는 「親見聞シ事ニテ侍レバ、人ヅテナラズ」(이것은 내가 직접 본 일이고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작자가 직접 보고 경험한 부분에 「侍り」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沙石集』에는 용례 <12>와 같이, 작자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전해오는

설화에도 「侍り」로 대우하는 경우가 있다.

〈12〉常州ニモ、コレ程ノ説經師アリケリ。百姓共、類講ト名
テ、或橋ヲカケヌ。其中ニ先立モノアレバ、孝養ノ爲ニ、
率都婆ヲ立ナンドスル事ニテ侍ルニ、橋カケ、率都婆立、
供養セサセケル時申ケルハ、…………… (6-3)

「百姓共、……………事ニテ侍ルニ、」(백성들이 추선공양을 위해 답도 세우고 다리도 만들었는데……………)와 같이, 화제속 등장인물이 제삼자인 경우에도 전해들은 이야기를 마치 집필자인 작자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것처럼 서술하는데 「侍り」를 쓰고 있다.

또한 『沙石集』 地文에서는 불교의 교리와 인간의 도리에 대한 佛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작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등을 피력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侍り」 표현이 頻出한다.

〈13〉但シ、最後ノ念ノツヨキニヒカレテ、感ズル事ナレバ、畜
生道ニゾ落テ、下風ヒリ蟲ニヤナリケムトコソ覺ヘ侍レ。
哀レ取替ル物ナラバ、六角堂ノ女房ト、迎講ノ觀音ニ、取
替ヤトゾ、ヲカシク侍シ。 (6-8)

이와 같이 『沙石集』 地文에서는 작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등을 피력하거나 또는 직접 보거나 들은 이야기나 남에게 듣고 採録한 설화를 마치 본인이 경험한 것처럼 서술하는 부분에 「侍り」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중고 시대 대화문에서 청자를 대우하는 「侍り」가 화자 자신에 관해 극히 국한된 화제에만 사용되었으나, 중세에는 용례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동작 행위에도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의 개인 상호간 신분 관계에 의한 중고 시대의 「侍り」의 표현과 이러한 地文에서의 불특정 다수 독자에 대한 표현주체인 작자의 대인 태도나 감정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우성 또한 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A)단계의 「申す」용법처럼, 이야기를 제공하는 집필자의 입

장에서 작품 수용자인 독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를 나타내는 「侍り」라 할 수 있다.¹⁰⁾ 다음은 『沙石集』 대화문에 사용된 「侍り」가 어떤 계층이 사용했으며 그 대상은 누구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表2〉 대화문에 있어서의 「侍り」사용 횟수[사용자(화자)/대상자(청자)]¹¹⁾

계 층	사용자(화자)		대상자(청자)	
	사용수	비율(%)	사용수	비율(%)
(I)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 신분	0	0	1	0.6
(II)殿, 大臣, 등 고위직	8	4.9	3	1.9
(III)상급 승려, 大宮司,	29	18	47	29
(IV)가마쿠라 정권의 지배층	1	0.6	6	3.7
(V)무사계급, 女房	6	3.7	3	1.8
(VI)출가자, 神官,	34	21	38	23.5
(VII)서민, 俗人	60	37	40	24.7
(VIII)초인의인 것,	20	12.3	20	12.3
(IX)외국 설화	4	2.5	4	2.5
총 사용수	162	100	162	100

古語化의 길을 걷고 있는 「侍り」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자료가 중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문에 162회나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우대상이 주로 상급 승려(29%)나 출가자(23.5%), 서민·俗人(24.7%), 초인

10) 이러한 「侍り」를 『日本国語大辞典』에서는 「地の文に用いて、あるものの存在を自己の経験したこと、知っていることとして、つつしみ深く表わす。読者を予想した表現ともいわれ、特に中世に多いこの用法は、一種の雅語的用法であるともいわれる。」라고 기술하고 있다.(『日本国語大辞典』(縮刷版) 1980, 第8卷, 小学館, p.1125.)

11) 都基禎, 「『沙石集』의 敬語研究-「侍り」의 待遇性」, 『日本文化學報』 54輯, 韓國日本文化學會, 2012, p.27.

적인 대상인 동물과의 대화(12.3%) 등, 그다지 높지 않은 계층에 분포되어 있어 「候ふ」에 비해 그 敬度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화문에 쓰인 「侍り」의 구체적인 용례를 보면,

〈14〉常州國ニ或山寺ニ、僧共、僧膳クヒケルニ、餘ノ僧共ガ小法師ハ、ミナヲロシ食ヒケルニ、現乗坊ト云僧、ヲロシモセザリケレバ、其ノ小法師ガ申ケルハ、「ヲロシシ給ハヌ、現乗坊ヨリモ、小法師コソ恥カシク侍レ」ト云。 (8-10)

『沙石集』의 내용 구성을 보면, 전반 5권까지는 불교 교리와 불법에 관한 깨달음을 가르치는 내용이나 당시 정권의 집권자에 대해 칭송하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후반인 6~10권까지는 고승이나 출가자, 그리고 일반 俗人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각 지방의 설화가 많이 등장한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마쿠라 정권의 지배층이나 무사계급들의 대화문에는 「侍り」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당시의 口語인 「候ふ」가 전용되는 것¹²⁾에 비해 용례〈14〉와 같은 출가자나 스님들의 대화에는 「侍り」를 多用하는 특징이 있다.

〈15〉下野國アソ沼ト云所ニ、常ニ殺生ヲコノミ、鷹ヲツカヒケル俗アリ。或時鴛ノ雄ヲトリテ、餌袋ニ入テ返ニケリ。其夜ノ夢ニ、………「イカニウタテノ童ガ夫ヲバ殺サセ給タルゾ」ト云。夢ノ中ニ「サル事コソ覺ヘ侍ネ」ト云。 (7-14)

용례 〈15〉에서는 시모즈케(下野)지방에 사는 살생을 늘 즐기는 한 사내가 있었는데 하루는 원앙새 수컷을 잡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꿈속에서 여인 차림으로 나타난 암컷 원앙새와 대화하는 부분에 「侍り」의 사용이 보인다. 초인적인 동물과의 대화에 「候ふ」대신에 「侍り」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侍り」가 그 시대에 맞지 않은 비현실적인 언어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 都基禎(2012) p.30

〈16〉天徳ノ御歌合時、兼盛・忠見、共ニ御隨身ニテ、左右ニツヒテケリ。……兼盛訪ヒケレバ、「別ノ病ニアラズ。御歌合時、名歌ヨミ出シテ覺侍シニ、殿ノ、「物ヤ思ト人ノトフマデ」ニ、アワト思テ、アサマシク覺ヘシヨリ、ムネフサガリテ、カク思侍リヌ」ト、ツイニ身マカリニケリ。執心コソヨシナケレドモ、道ヲ執スル習ヒアワレニコソ。(5末-6)

「侍り」가 「候ふ」에 비해 敬度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表 2>의 (Ⅱ) 계층 단계 신분에게 사용한 예가 <16>의 「侍り」이다. 용례 <16>은 덴토쿠(天徳) 4년(960년), 궁중의 와카 겨루기에서 가네모리(兼盛)에게 진 다다미(忠見)가 병을 얻어 죽게 되었는데 다다미가 가네모리에게 병이 걸린 사연을 말하는 부분에 「侍り」가 2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 서술인 경우에는 (Ⅱ)계층 신분이 대상이라면 敬度가 높은 「候ふ」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侍り」로 표현 되었다는 사실은 표현주체인 작자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간주된다. 즉,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헤이안(平安) 귀족사회의 인물인 만큼 그 시대에 대자경어로 전용된 「侍り」의 표현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당시의 향수(「みやび」)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侍り」와 「候ふ」의 混用

〈17〉近比奥州ノ或山寺ノ別堂ナリケル僧、本尊ヲ造立セント年來思ヒ企テテ、金ヲ伍十兩守ノ袋ニ入テ、頸ニカケテ上洛シケル程ニ、……家ノ中ニ若キ女人アリテ、「何事ゾ候仰ゾ」ト云。「登リノ時、物ヲ忘レタリシガ、此御宿ト覺候事ヲ申也」ト云。「何ヲ御忘レ候ケル」ト問フ。……コマヤカニカタライ聞ケレバ、「京ノ物ニテ侍ルガ、親キ物モ皆失テ、縁ニフレテ下リ侍ルガ、白地ト思シ程ニ、此宿ニ一兩年佳ミ侍リ」ト云。(9-1)

용례 <17>은 오슈(奥州)의 한 스님이 本尊을 세우려고 금 오십 냥을 가지

고 교토(京都)로 올라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깜박 잊고 주머니를 두고 간다. 도중에 이 일을 알게 된 스님은 안타까워하며 숙소를 다시 찾게 되며 숙소에서 일하는 여인이 이 금이 든 주머니를 돌려주었다는 逸話이다. <17>에서 스님과 여인과의 전반 부분 대화에는 당시의 口語인「候ふ」를 사용하고 있으나, 후반 부분에는 같은 대상에 대해「侍り」로 대우하고 있다. 화자가 같은 대상에 대해「候ふ」를 사용하거나 다른 상황에서는「侍り」를 혼용하고 있어 표현주체인 작자가 어떤 의도를 나타내려고 하는지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17> 후반에 쓰인「侍り」처럼, 대화 도중에 화자 자신에 관련된 일이나 과거 사항을 나타내는 부분에「侍り」를「候ふ」와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沙石集』의 대화문에는 이와 같이「候ふ」와「侍り」를 혼용하는 경우¹³⁾가 있으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금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 13) 『沙石集』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문에서 「侍り」와 「候ふ」를 병용하고 있다.
- <1권> 1-3 公顯僧正→遁世聖(2)<2> 1-4 子供→常觀坊上人(2)<2>
 - <2권> 2-6 牛頭馬頭→地藏菩薩(1)<2> * 餓鬼→地藏菩薩(1)<2>
 - <3권> 3-3 嚴融房→女房の妹(1)<4> * 俗人↔人々(1)<2>
 - 3-8 明惠上人→梅尾上人(5)<2>
 - <7권> 7-9 山寺の人々→ある俗人(2)<2> 7-23 寺僧↔相人(1)<2>
 - 7-24 病氣の女→大圓房上人の弟子(2)<2>
 - <8권> 8-11 小兒→坊主(1)<5> * ある人→京の人(1)<5>
 - <9권> 9-1 正直な女↔山寺の別堂(3)<6> 9-4 地頭一族↔地頭(1)<14>
 - 9-7 女房→禪門(1)<4> 9-8 食物を盗んだ子→春乘坊(3)<4>
 - * 食物を盗んだ子の母→春乘坊の使者(3)<2> * 山寺のある僧→白川院(1)<6>
 - 9-9 貧しい子→人々(2)<1> 9-10 捨得という俗人→豊干禪師(2)<1>
 - 9-12 貧しい侍↔人々(1)<16> 9-13 鎌倉の大臣(源實朝)↔莊嚴坊(2)<9>
 - <10本권> 10本-4 明遍僧都→僧都の使者(2)<12> 10本-6 強盜法師↔判官(2)<7>
 - 10本-8 一乘院僧正→光明院僧正(1)<3>
 - <10末권> 10末-2 山賤↔實賢僧正(14)<9>
 - 10末-3 鎌倉の大臣(源實朝)→榮西僧正(1)<2>
- [() 는 「侍り」, < > 는 「候ふ」의 사용수, ↔ 는 상호 사용]

4. 결론

『沙石集』에서 사용된 「申す」는 종래의 용법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우성을 가지는 것이 빈출한다. 이러한 용법의 「申す」는 특히 地文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고 시대 「申す」의 대우성은 청자에게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에 관한 화제를 낮추어서 청자에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沙石集』의 地文에서는 화제가 자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제 3자의 동작행위나 심지어 절대 권력자에 대한 경우에도 표현되고 있어 그 대우성을 중고 시대와 달리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地文에서는 동작주와 대상주 상호간의 행위 동작에 「云ふ」를 사용하다가 어느 한 부분만 「申す」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문체적 용법으로 표현주체인 작자가 「申す」 語感이 가지는 「엄중함, 비장함, 긴박함」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장의 극적인 표현효과를 의도적으로 독자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沙石集』에서는 「申す」와 마찬가지로 「侍り」가 地文에서 작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피력하거나 설화 내용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 또는 전해들은 것처럼 정중하게 독자들을 대우하는데 「侍り」가 사용되고 있다. 대화문에서는 중세의 다른 작품에 비해 「侍り」의 사용량이 현저하게 많으며 이것은 「侍り」가 가지고 있는 「고풍스러움, 우아함, 정중함」 등을 나타내기 위해 이들 대상에게 어울리는 고승이나 출가자들의 대화에 多用되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설화에 등장하는 대상이 헤이안(平安) 귀족사회의 고위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敬度が 떨어지는 「侍り」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侍り」의 표현은 문체적 용법으로 중고 시대 口語로 전용된 「侍り」의 표현을 통해 王朝的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문장의 표현효과를 얻기 위해서 작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穂田定樹, 『中古中世の敬語の研究』, 清文堂, 1976.
- 片岡了, 「中世語『申す』の表現内容の多様性」, 『文芸論叢』 6, 大谷大学, 1976.
- 黒沢幸子, 「中世説話集における待遇表現の研究 -『候ふ』『侍り』を中心に-」, 『文学論藻』 50, 東洋大学国語国文学会, 1975.
- 辻村敏樹 編, 『講座 国語史 5 敬語史』, 大修館書店, 1971.
- 都基禎, 「とはずがたりの 敬語 研究-문체적 용법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41輯, 韓國日語日文學會, 2002.
- _____, 「中世語『申す』의 用法 -『とはずがたり』의 用例를 중심으로」, 『日語教育』 33輯 韓國日本語教育學會, 2005.
- _____, 「『沙石集』의 敬語研究 -『侍り』와『候ふ』를 中心으로」, 『日本文化學報』 50輯, 韓國日本文化學會, 2011.
- _____, 「『沙石集』의 敬語研究 -『侍り』의 待遇性」, 『日本文化學報』 54輯, 韓國日本文化學會, 2012.
- 『日本国語大辞典(縮刷版)』第8卷, 小学館, 1980.
- 布山清吉, 『「侍り」の国語学的研究』, 桜楓社, 1982.
- 林四郎・南不二男 編, 『敬語講座③ 中世の敬語』, 明治書院, 1974.
- 宮地裕, 『講座日本語學 9, 敬語史』, 明治書院, 1981.
- 山下正治, 「沙石集の研究(七)」-『侍』と『候』について『立正大学紀要』12, 1979.
- 若林俊英, 「沙石集の会話文における『侍り』と『候ふ』」, 『湘南文学』 12, 1978.
- 渡辺綱也 校註, 『日本古典文学大系 85 沙石集』, 岩波書店, 1966.
- 藁谷隆純, 『中古中世の敬語』, 教育出版センター, 1989.

❖ ABSTRACT

On the Usage of ‘Mosu’, ‘Haberī’ in “Shasekishu”

Do, Ki Jeo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ider the usage of ‘mosu’ and ‘haberī’ in “Shasekishu” written in middle Japanese. In old Japanese, ‘mosu’ and ‘haberī’ was used as a modest usage. In middle Japanese, however, the term came to be used in the way to pay respect to the hearer with the shift of its usage, further, in ‘jinobun’, the writer is using it in the stylistic usage which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roviding aesthetic effect for many unspecified readers. As a device to express the honorific forms in middle Japanese, the stylistic usage is claimed to be found with other literary works as well as “Shasekishu”.

Key Words

「沙石集」, 「申す」, 「侍り」, 「地の文」, 「文体的用法」
Shasekishu, mosu, haberī, jinobun, The stylistic usage

논문접수일: 2013. 02. 08.

심사완료일: 2013. 03. 10.

게재확정일: 2013. 03. 15.